



(뉴욕에서 불우이웃 집짓기 운동에 참여하여)

다음글은 2년전부터 오른손이 하는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2주에 한번씩 한재소자를 가족처럼 섬기시는 한 집사님의 수기이다.

베어마운틴을 넘어가는 한 산봉우리에 얼음꽃이 벌거벗은 나무 숲 전체에 가득 피어있는 광경을 바라보며 찬탄의 소리가 절로 벌어진 입가로 흘러나왔다. 겨울뿐만 아니라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로 운전을 하면서 지날 때 그 경이로움에 전율을 느낄때가 어찌 숫자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 길은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져 있는 나의 친구 집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을 다닌지 벌써 2년이 지났다. 20여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기억이 없던 때에 3년전쯤 나의 삶속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셨다. 그 때쯤 또 다른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분이 이 상숙 전도사님이셨다. 그 분의 사역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작은 동요가 일어났다. 그 후로 나는 1년동안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시작했다. 신앙선배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나의 뇌리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였다. 1년이 지나면서 마음에 다짐을 굳혀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였다.

이 전도사님과 전화통화를 하고 교도소를 방문할 뜻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 ‘그린 헤이븐’이라는 교도소를 찾아갔다. 이 전도사님과 함께 그 형제를 면회했다. 내가 만날 형제에 대해서는 간단한 내용만을 전달 받았다. 이름과 가족사항 그리고 종신형을 받았다는 것과 까지 16년을 교도소에서 지냈다는 것이였다. 그 형제가 왜 교도소에 왔는지는 아직까지 나는 모른다. 다만, 나는 그 형제에게 YH2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처음 YH2를 만났을 때 그 상황들을 적응해 가는데 쉽지가 않았다. 음식들을 반입시키는데도 규정사항이 무척 까다로웠고, 면회실로 가는 동안에 보안경계 또한 철저했다. 처음 만난 YH2와의 대화도 만만치 않았다.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시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2주에 한 번씩 만나기로 결정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만남을 주님이 허락하셨다. 첫 일년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었을까? YH2도 나도 서로에게 솔직해 지길 바라는 마음이었던것 같다. 무엇이 먹고 싶은지도 무엇이 필요한 지도 조금씩 이야기를 했다. 자신의 개인일과들도 이야기하고 그곳 생활상도 이야기 했다.

두 번째 해가 되면서 성경을 일독하기로 합의했다. 성경일독 과정중에 질문사항이 대화의 내용이 되었고, 주님이 우리의 이야기의 대상이 되었다. 어느날 부터인가 YH2는 헤어지기 전에 그리고 나는 시작할 때의 기도를 했다. 두 손을 서로 잡고 그것도 서로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이다. 몇 달전에 사탕을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담배를 끊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자기 폐쇄적인 삶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 본인 자신도 알고 있으면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 YH2를 만났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 2년동안 자기 자신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내가 자기를 볼 때 무엇이 바뀐 것 같은지 말해 달라고 해서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밝아지고 맑아졌다고 답했다. 영혼(얼)의 모습(꼴)이 얼굴이라고 했는데 YH2의 변화되는 모습앞에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덧붙여 그에게 이야기했다.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속에 실재로 펼쳐보자고 했다. 성령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기뻐다.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과 평안과 믿음을 주는지 헤아리는 가운데 퀴즈로 들어가는 다리가 저 멀리서 보인다.

이 상속 전도사





(광야캠프학생들이 6박 7일동안의 캠프를 위한 자신의 텐트를 세우고 있다.)